

법원 “생기부 신뢰 훼손 교장 징계 적법”

졸업생 출결일수가 기록된 학교 생활기록부와 배치되는 내용의 담임진술서에 직인을 날인 해주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를 훼손한 교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광주 모 학교 전 교장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학교 졸업생 B 씨는 2016년 10월 학교에 정근상(결석 일수 3일 이하)을 재발급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이 학교 교감은 B 씨의 생활기록부를 통해 B 씨가 재학 중 16일 결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 정근상 재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당시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한 B 씨는 담임이었던 C 씨를 찾아가 출결 상황 확인을 요청했다.

C 씨는 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졸업 연도가 오래돼 전자출결관리부를 열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계속해 C 씨에게 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을 정근상 수상요건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 씨는 B 씨의 재학시절 출결 상황이 기재된 수기출석부를 확인하고 B 씨가 5일을 결석(질병 3일·무단 2일)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A 씨에게 날인 요청을 했다.

A 씨는 C 씨와 교무부장 등에게 B 씨의 출결 내용을 검토하게 한 뒤 담임진술서에 직인을 날인, B 씨에게 건넸다. B 씨는 A 씨의 직인이 날인된 담임진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했다.

담임진술서에는 ‘본인은 B 씨의 담임교사로 재직했다. 졸업생 B 씨가 생활기록부상의 출결상황에 오류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 당시 출결상황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B 씨의 출결상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전자출결관리부의 내용을 기초로 한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 담임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자출결관리부뿐만 아니라 수기출석부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민원인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류의 담임진술서를 법적 장부인 생활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수기출석부에 근거 작성한 것을 방조하고 날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무원시험 합격 졸업생 재학 중 출결일수 사실과 다른 문서에 직인

A 씨는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A 씨는 ‘담임진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임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담임진술서에 날인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을 전제조건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A 씨가 단순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가 아닌 공

신력이 부여된 바 없는 수기출석부의 내용을 선불리 믿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배치되는 내용의 담임진술서에 직인을 날인 해 줬다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정정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진인격적 기록으로 해당 학생의 재학 중 교육과 삼급학교 진학은 물론 장애 취업 등에 중대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 신뢰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담임진술서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핵심 기재 내용 중 하나인 해당 학생의 출결석에 관

한 문서로 기관에 임용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임진술서에 직인을 날인해줬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행위는 간접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진실한 자료에 근거해야 할 공무원 채용에 객관적인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자료가 사용되게 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춘정 기자



“누나만 믿어”... 썰매타는 아이들 21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읍 일원에서 열린 2018 화천산천어축제에 찾은 어린이들이 얼음썰매를 타고 있다.

2020년까지 노후 소방 무전기 전량 교체한다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 보안·신형 디지털로 전량 교체

소방청은 제천 화재에서 문제가 됐던 재난현장 무선통신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노후된 소방 무전기를 전량 교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소방특별교부세 등을 투입해 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를 보안 및 통화품질이 우수한 신형 디지털 무

전기로 전량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별 무선통신 난징지역 해소를 위해 중계소를 보강하고 소방서별 차량용 이동중계기 설치에 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파환경 시뮬레이션 등 전문조사 기관을 참여시켜 전국 시·도별 난징지역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무선통신 기반시설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아프간 카불 호텔 인질극 종료...최소 5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일(현지시간) 무장괴한 4명이 인질극을 벌이며 정부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AFP, 러시아투데이(R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RT는 이날 12시간의 대치 끝에 무장괴한 3명이 정부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숨져 상황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현지 정부군 소식통은 이날 AFP에 무장괴한들이 정부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투숙객 100명이 풀려났으나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는 아프간 정부군이 현장에 도착하고 11시간 동안 호텔 전체를 수색하는 동안 무장괴한 중 최소 1명이 달아났다고 말했다.

아프간 현지 TV 방송 톨로는 6층짜리 이 호텔의 상층에서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나는 장면을 보도했다. 이 영상에서 투숙객들이 난간에서 참대시트를 이용해 올라가 대피하는 장면이 보였다. 그 중 1명은 참대시트를 놓쳐 떨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무장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호텔은 2011년에도 탈레반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차 훔쳐 달아나던 중남성 트럭과 충돌 사망

차를 훔쳐 달아나던 남성이 10분만에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시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레드넷에 따르면 후난성 창데에 살고 있는 27세 한 남성은 전날 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서비스를 통해 택시를 호출했다.

도착한 택시에 올라탄 남성은 교외 지역으로 가지고 갔다. 평범한 승객인 줄로만 알았던 이 남성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운전기사에게 칼을 겨누며 차를 두고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 남성은 운전기사에게 “원한다면 경찰에게 범죄 사실을 얘기하라고” 으름장까지 걸었다.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행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이 났다. 이 남성은 차를 몰아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다른 차를 추월하려고 할 때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범행 10분만이었다. 택시는 완전히 부서졌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빨리 일어나긴 했지만 이것이 바로 카르마(불교의 업·업보)”라며 남성을 비난했다.

‘악마상’ 논란 그리스 조각작품 파손

그리스에서 ‘악마상’ 논란을 일으킨 조각상이 결국 파손됐다고 현지 언론 리포터가 최근 보도했다.

수도 아테네 남부 외곽도시 팔리오에서 그리스 예술가 코스티스 게오르기우의 조각품 ‘필락스(Pyllax, 그리스어로 수호자)’가 지난 17일 밤 파손됐다.

시장은 현지 라디오 방송 리얼 FM과 인터넷에서 8m 높이에 세워진 조각상을 악마라며 반대한 무리가 조각상을 떨어뜨렸으며 이는 공공 기물 파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복면을 착용한 10여 명의 무리가 대형 트럭 1대와 지프 2대에 나눠 타고 왔다”며 “이들이 조각상에 로프를 던져서 같은 뒤 잡아 당겨 떨어뜨려서 조각상의 날개가 부러졌다”고 밝혔다.

또 범인들이 인근 식당에서 이를 목격한 주인에게 경찰관이나 시장에게 신고하면 식당을 불태우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전했다.

폭풍 프레데릭, 서유럽 강타 최소 9명 사망

최대 풍속 140km/h에 달하는 폭풍 ‘프레데릭’이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유럽을 강타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

1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을 거친 프레데릭은 현재 폴란드에 상륙한 상태다. 독일 기상청은 2007년 이후 독일을 강타한 폭풍 중 최악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폭풍으로 파괴된 도시의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관 2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강풍에 날린 나무 및 건물 파편에 타격을 입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도로 반대편에서 날아온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강풍으로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치반은 18일 모든 장거리 노선을 취소했다. 도이치반 대변인은 “나무 등이 철도 노선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독이켜 보면 놀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사가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임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